

오늘 세미나는 그동안 부정적이었던 화장실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어야 하며, 깨끗하고 품위있는 대전시의 이미지를 가꾸고 청결한 관광한국이라는 인식제고를 위해 앞으로 개방화장실과 화장실문화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적극추진 하겠습니다.(홍선거대전시장의 축사에서..)

# 대전시 화장실 문화수준 향상을 위한 세미나 개최

편집부



좌측부터  
◀홍선거 대전광역시장의 축사  
◀우수화장실 시상식 장면

대전광역시(시장: 홍선거)는 깨끗하고 품위있는 화장실 대상 시상식과 함께 화장실 문화수준 향상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하여 청결한 도시이미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일시 : 2001년 6월 8일(금) 14:00~16:30
- 장소 : 대전광역시청 세미나실(3층)
- 주최 : 대전광역시, 월드컵문화시민운동 대전광역시협의회

## 시상식

시상식은 불관리와 박국주 과장의 사회로 시작하여 송인호 심사위원장(충남대 건축공학과 교수)의 심사보고 순으로 진행되었다.

송인호 위원장은 심사과정을 설명하면서 “정갈한 디자인, 고객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위생적인 시설을 갖춘 기독교연합봉사회관 및 그랑삐아프 레스토랑이 최우수상을 받게 되었다.”고 소개하며, “한가지 아쉬운 부분은 아직 대상을 받을만한 화장실이 없다”고 하며 “금년에 열심히 노력하여 대상을 수상할 수 있는 화장실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홍선거 시장은 축사를 통하여 40년을 지방행정에 참여하였지만 화장실 관련 세미나는 처음 개최한다고 하면서 오늘 세미나를 통하여 그동안

부정적이었던 화장실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어야 하며 아직은 개방화장실에 너무 인색한 것 같은데 앞으로 도시의 이미지와 한국의 관광문화 개선차원에서 개방화장실은 꼭 필요하여 대전시도 개방화장실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 세미나 개최

대전대학교 이지숙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화장실 문화수준 향상을 위한 세미나는 공중화장실의 시설부분, 관리성의 문제점, 이용자의 공중질서 의식 방안 등으로 발표가 되었다.

「첨단화장실의 시설과 설비」를 발표한 전영상 교수(동양공업대)는 공중화장실은 19세기 초 세계 처음으로 관광산업이 시작된 이래 관광붐이 만들어낸 인간 생활양식에 혁명을 가져다 준 발명품 제1위가 되었고 화장지는 5위에 랭크되어 있는 것을 보면 우리에게 얼마나 고마운 것이 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첨단 공중화장실의 시설과 설비는 문헌 및 국내외 사례를 고찰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집적하였으며 2002년 월드컵 개최도시의 자연과 잘 순응하는 건물형태를 구현하여 자연색채와 건축물의 실내·외의 색채계획 설계를 함으로써 특히 농경시대에 분노를 아주 귀하게 여겨온 우리 선조의 뛰어난 과학적 두뇌를 현대사회에 접목하

2011. 6. 8(수) 14:00 ~ 16:30

# 깨끗하고 품위있는 화장실 대상 시상 및 세미나

주최: 대전광역시 월드컵문화시민운동 대전광역시협의회



▲ 화장실문화 개선을 위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는 세미나실



▲ 세미나에 참석한 발표자



고자 노력한다.

「공중화장실관리상 문제점과 대책」을 발표한 **본 협의회 강석남 사무국장**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과 노력을 들여 화장실 문화를 개선하고 있지만 이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도리어 전시행정의 표본이라는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될 것이다.

작년에 협의회에서 실시한 월드컵 개최 10개 도시의 공중화장실 실태조사 자료를 예로 들며 앞으로 화장실 관리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첫째, 조직의 정비(공중화장실 전담부서 신설등) 둘째, 교육의 시행(관리지침에 따른 관리자 교육) 셋째, 예산의 확보(관리자 인건비 및 유지관리 비용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화장실 이용자의 공중질서외식 제고방안」을 발표한 **대전화문연 이성두 사무국장**은 선진 화장실문화가 꽃피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화장실 문화향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불심양면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사회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공동체 의식이 함께 할때 가능할 것이다.

「오아시스 같은 고속도로휴게소 화장실」을 발표한 **한국도로공사 충청지역본부 이성희 시설영업과장**은 화장실 특성상 아무리 비싼 돈을 들여 좋은 시설을 갖추었다더라도 한시라도 소홀히 하면 금방 더러워지고, 더 이상 오래 머물고 싶지 않은 장소로 전락해 버리고 맙니다.

화장실 개선사업을 추진한 이후 유지비용도 2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향후 비용은 줄이되 시설은 종전처럼 깨끗이 유지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개선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끝으로 청결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양한 계도 활동과 더불어 적극적인 시민의식이 발휘되도록 하는 제도 또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고객만족을 위한 화장실 관리」를 발표한 **롯데백화점 대전점 이정문 지원팀장**은 아름답고 청결한 화장실의 유지는 관리자뿐만 아니라 시설 개선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며, 이용자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함께 필요하다고 발표하였다.

토론자로 나온 명정하이테크 이승룡 이사와 대전 시외버스터미널 한종덕 상무는 화장실 시설이 변하면 이용자의 의식도 변하는 것이 사실이며 지자체에 공중화장실 전담부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본 협의회에서 작년에 월드컵 개최 10개 도시의 공중 화장실 실태조사 결과 대전시의 점수는 높지 못하였다.

화장실문화개선사업은 단체장의 인식 변화에 따라 도시별로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데, 홍선기 대전시장님께서 화장실문화개선사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발표하여 대전광역시의 변화에 기대가 크다.(편집자)